

[ 교육 ]



7~8일 이틀 동안 조선대 중앙도서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대 창업·취업동아리 VISION 2008'에 참석한 학생들이 관객에게 개발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 CEO를 꿈꾸며...

## 조선대 창업 동아리전 'VISION 2008' 천연 화장품 등 튀는 아이디어 선택

'20대 학생 CEO'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전시행사 '조선대 창업·취업동아리 VISION 2008'이 7~8일 이틀 동안 조선대 중앙도서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조선대 창업·취업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교내 33개 창업·취업동아리 회원들은 미래의 벤처기업 CEO를 꿈꾸며 개발한 실제품을 선보이고 올해 연구할 아이템을 미리 설명한다.

동아리 '네오싱크(NEOTHINK)'

는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도서관에서 책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선보인다. '대학생자동차연구회'는 덤프 트럭이나 지프차량의 전복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카오스(CHAOS)'는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검색·저장하는 프로그램 '텍스트그라인더'를 전시한다.

학생 동아리 외에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 중 10개 회사가 함께 참가해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인다. '코래드'는 솔라셀(Solar Cell)을 이용해 배터리나 전원이 필요없는 LCD 응용 제품을, '페노스'는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등을 선보인다. 1998년 14개 동아리로 출발한 창업·취업동아리연합회는 현재 33개 동아리가 IT분야 뿐 아니라 기계·전기공학, 생명특허, 증권투자, 전통식품, 생명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과 취업을 목표로 아이디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캠퍼스 소식

#### 전남대, 5·18 평화 콘서트 등 문화행사

전남대학교(총장 강정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풍성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전남대는 오는 25일 가수 박상민과 함께 하는 '백혈병어린이돕기 콘서트'를 연다. 이날 티켓(3만원) 판매 수익금 전액은 화산전남대병원에 기부된다.

27일에는 5·18 28주년 기념 평화콘서트가 봉지 앞 상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교내 기타동아리 '선율'과 '하이코드', 가야금동아리 등 학생들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28일에는 학생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는 '학생음악회'가 준비됐다.

29~30일에는 전남대 개교 56주년 기념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무료 공연이 광주·여수캠퍼스에서 펼쳐진다. 문의 062-530-1072.

#### 동강대, 창업보육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동강대학(학장 이주석)이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창업보육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동강대는 전국 269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된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동강대학은 지난해 연간 보육실 운영률 96.3%, 혁신형 중소기업 비율 53.8%, 입주기업 고용증가율 20.3%,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등록 13건 및 출원 4건, 정부출연자금 유

치 기업률 46%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입주기업과 졸업기업의 지난해 대비 매출 성장률이 107%와 38.7%로 기록됐다.

#### 동신대, 지역사회복지 등 봉사단 출범

동신대학교(총장 정기언)는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연중 전개하기 위해 7일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동신대 사회봉사단은 ▲지역사회복지봉사 ▲일반자원봉사 ▲의료봉사 ▲문화·공연봉사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봉사 분과는 사회복지학과·뷰티미용학과·운동처방학과·생활체육학과·유아교육학과·상담심리학과 구성원들이 참여해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 저소득층 아동지도 등에 나선다. 교직원들 비롯한 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단과대학학생회·일반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일반자원봉사 분과는 자연재해 시 피해복구, 농번기 일손 돕기에 투입된다.

의료학과·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방사선학과·작업치료학과 학생 및 부속한방병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 분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와 보건교육, 질병관리, 재활요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용음악학과·방송연예학과·유아교육학과·음악동아리 학생이 활동하는 문화·공연봉사 분과는 각종 콘서트와 공연 등을 통해 매주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 감성을 채워줄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 해외 어학연수 어떻게 준비할까

# 주관 업체·프로그램 꼼꼼히 따져라

이맘 때면 초·중·고교생을 둔 학부모의 고민이 한 가지 늘어난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야 할 것인지, 어디로 보내야 할지, 어느 정도의 돈을 써야 할지, 과연 효과는 있을 것인지 등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해외 어학연수 상품을 내놓고 있는 유학원, 어학원 등은 줄잡아 4천여곳에 이른다. 학부모들의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국제청소년문화협회 부설 '캠프나라(www.camp.or.kr)' 김병진 사무국장은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서 해외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사무국장으로부터 '좋은 해외 어학연수 고르는 법'을 들어본다.



전문가들은 수백만원을 들여야 하는 해외 어학연수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뿐이라고 조언한다. <캠프나라 제공>

#### 국내 4,000여 업체 중 80%가 '브로커' 수준... 자칫 부실

#### 경험자 조언·설명회 참가 등 발품 팔아야 생생 영어 습득

◇업체 선정이 키워드=국내에서 방학기간 해외 어학연수 상품을 내놓은 4천여개의 업체 중 캠프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모객 행위를 대행하는 일종의 '브로커'라는 얘기다. 모객행위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해외연수를 갈 경우

부실 연수나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업체가 캠프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경험의 정도도 먼저 따져야 한다. 캠프 운영을 주관하는 곳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나 기획안, 자료집 등을 체크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언어별 캠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낫다. 웬만큼 큰 회사가 아니면 모든 언어권의 어학캠프를 운영하기 어렵다. 생소한 업체가 여러 나라의 캠프 상품을 판매한다면 일단 중계업자로 봐도 무방하다.

◇발품을 팔아라=직접 해외연수를 경험해 본 지인들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경험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해외 연수 관련 설명회에는 반드시 참가해야 한

다. 설명회에서 업체의 재정 능력이나 행사 운영 능력, 강사진 등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의 홈페이지를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설명회에 사정상 참가하지 못했다면 직접 업체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행사 현장이 아닌 업체의 사무실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회보다 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사의 상담을 받으면서 인적 구성이나 캠프 관련 인·허가 여부 등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또 확인=캠프 교육 내용과 숙식시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리조트 등에서 무자격 영어강사들의 수업을 받는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등 북미는 휴스테인도 정부나 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해당 국가에 맞는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만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경우 즉흥적으로 장소 등을 섭외할 가능성도 크다.

현장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보험가입 여부다. 지난 캠프의 보험가입 실적을 확인하면 캠프 운영 주관업체가 맞는지, 지난 캠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녀왔는지 등의 의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광비자로 가는 캠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공인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최신간 해외학술도서 한자리에

### 전남대, 5,000여권 전시후 교수·학생 원하는 도서 구입

이 대상이다.

전남대는 교수와 학생들이 전시회에 출품된 책들을 훑어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수 1인당 30만원, 학생 20만원 이내의 책을

구입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이 선택한 책은 행사 후 학교 측이 일괄적으로 구입, 도서관에 비치한다. 이번 전시회와 도서

구입에는 교수의 연간 외국도서 구입비로 책정된 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 3월부터 도서관 자료열람실과 대출반납실 개관시간을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국내정상급 여성골퍼들이 "항공라이너스리CC"에 모인다.**

- 대회명: 2008년 KB국민은행 Star Tour 1차대회
- 기간: 2008년 5월 9일(금) ~ 5월 11일(일) 3일간
- 주관: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발행처: 오후 1시 ~ 4시까지 (X-PORTS 대명)
- 참가인원: 국내정상급 프로 & 120명
- 총상금: 2억원 (3월 54일 스폰서로크플레이)

● 후원기관: (주)한국라이너스리CC, (주)한국항공, (주)한국항공, (주)한국항공